조선 불교소설 특징은 '佛·儒·仙 융합'

이대형 교수, 11일 한국불교사硏 학술세미나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임진왜란 이후인 조선 후기는 '소설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많은 소설들이 나왔다. 이들 조선 후기 소설들에 함의된 불교적 요소를 분석하는 논문이 발표됐다.

이대형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8월 11일 남양주 봉인사 지장전에서 열린 한국불교사연구소 학술세미나에서 조선 후기 불교 소설들을 분석하고 특징들을 살폈다.

이 교수는 조선 후기 불교 소설들을 '불교 사상'과 '불교 소재'로 나눠 분석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불교 사상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받은 소설은 김만중(1637~1692)의 〈구운몽〉과 구전설화가 소설이 된 〈심청전〉이다.

깨달음·효 사상 담긴 불교소설

김만중이 51세(1687)에 지은 〈구운몽〉은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 스님이 8선녀를 희롱한 죄로 양소유라는 이름으로 인간세상에 유배돼 태어나고, 소년급제를 해 8선녀 후신인 8명의 여자를 만나 아내로 삼고 영화롭게 살다가 인생무상을 느껴 8선녀와 함께 불문(佛門)에 귀의하는 내용이다.

이 교수는 "김만중이 자신의 문집에 승려와 시를 읊고 〈원각경〉, 〈능엄경〉을 빌렸던 것을 기록하는 등 불교에 조예가 깊었다"면서도 "〈구운몽〉은 모친을 위로한다는 목적으로 인해 유학의 틀을 넘어서 불교의 깨달음을 주제로 표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조선시대 불교와 소설은 유학적 관점에서 비난의 대상"이라면서 "불교와 소설 모두 여성이 큰 비중을 담당했다는 특징이 있다. 불교와 소설의 융성은 조선 후기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효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심청전〉 역시 불교 사상을 보여주는 소설로 이 교수는 꼽았다. 실제 학계에서는 1792년 찬술된 〈옥과현성덕산 관음사사적〉을 〈심청전〉 근원설화로 보기도 하며, 용궁에서 연꽃을 통해 재생하는 모티프는 〈관무량수경〉을 비롯한 정토경전에 등장하는 것이다.



(사진 왼쪽부터) 조선 후기 소설 〈구운몽〉과 〈심청전〉. 이들 소설은 깨달음과 효라고 하는 불교 사상을 차용했다.

구운몽·심청전, 불교사상 담겨
대다수 소설, 불교 소재 활용
현세 구복종교 이미지가 강해
佛·儒 융합, 당시 사상계와 일치

불교 문화, 민중에 영향 미쳐

이와 함께 이 교수는 불교 소재 소설로는 역사소설 〈최척전〉, 가정소설 〈사씨남정기〉, 영웅소설 〈소대성전〉, 가문소설 〈소현성록〉 등을 꼽았다. 이들 소설들은 줄거리 상 중요 분기점에서 장육불·관음보살·노승·업보 등의 불교 소재들이 활용된다.

실제 〈최척전〉의 경우 주인공 최척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지리산 연곡사로 피난하고, 여기서 장육불을 현몽해 몽석(夢釋)과 몽선(夢禪)을 낳는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장육금불이 예시를 주어 극복하게 해준다.

이 교수는 "조선 후기 불교를 소재로 한 소설은 일일이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면서 "그만큼 불교가 당대 조선인의 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련의 조선 후기 불교 소설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 교수는 '구복'과 '불교·유교·도교'의 융합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깨달음을 주제로 한 〈구운몽〉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작품들은 현세 구복을 위해 불교를 신앙하는 모습이 나온다"면서 "영웅소설에서 늦은 나이에 아이를 얻기 위해 부처에게 기도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사대부 여인이 집안에서 쫓겨났을 때 사찰에 피신하는 것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선 후기 불교 소설의 중요한 특징은 '불교·유교·도교'의 통합이다. 〈구운몽〉에서 육관대사와 성진이 불교적 인물이라면, 8선녀는 도교적 인물"이라면서 "소설에서 보이는 불교와 유교, 도교의 융합 관계는 조선 후기 사상계의 특징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후기 불교지성인들의 문화적 추동과 변환'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조선후기 불교사상의 정비와 사기의 저술(전준모, 동국대) △조선후기 불자들의 정토인식과 불교의례의 재편(고영섭, 동국대) △조선후기 불교 변문의 창작과 변상도의 유통(박도화, 문화재청) 등의 주제논문이 발표됐다.

'경주 사천왕사' 발굴·활용 어떻게

경주문화재硏, 23일 학술대회

신라 대표 호국사찰인 경주 사천왕사의 발굴 성과를 살펴보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는 8월 23일 오전 10시 '경주 사천왕사지 보존정비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경주 드림센터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7개 주제발표로 구성됐으며, 오전에는 보존 현황과 발굴성과를 오후에는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뤄진다. 주제발표가 모두 끝나면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오전 대회에는 동아시아 사지(寺址)의 보존정비 현황 사례와 경주 사천왕사지에 대한 발굴성과를 살피기 위해 △중국 사지의 보존정비 현황과 사례(현승욱, 강원대) △우리나라 사지의 보존정비 현황과 사례(강현,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천왕사지 발굴조사의 현황과 주요성과(김동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를 발표한다.

오후에는 △사천왕사지 출토유물의 과학적 분석과 복원(정민호 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사천왕사지 유적 보존관리 방안(김우웅, 명지대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신라 사천왕사 관련 불교문화원형 발굴과 활용 방안(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경주 낭산 유적의 스토리텔링과 대중문화콘텐츠 개발 전략(박기수,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등이 발표된다.

사천왕사는 679년(문무왕 19) 경주 낭산 신유림(狼山 神遊林)에 건립한 신라 통일기의 대표적인 호국사찰이다. 낭산 신유림은 신라를 공격하는 중국 당나라의 해군을 막기 위해 승려 명랑이 밀교 의식을 행한 곳이기에 사천왕사는 신라 호국불교의 성격과 신라인들의 불교관·우주관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찰이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사천왕사지 학술발굴조사를 통해 가람배치를 비롯해 중요 건물의 규모와 구조 등을 새롭게 확인하였으며, 이와 함께 4,000점 이상의 다양한 유물을 발굴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사천왕사지에서 나온 사천왕사 녹유신장상(四天王寺 綠釉神將像), 녹유신장벽전(綠釉神將壁塼)을 복원해 올해 국립경주박물관과 공동전시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사천왕사지의 보존과 활용 분야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현대 한국불교 시대별 이념 '明暗' 존재

김광식 교수, 15~17일 교수불자대회서 주장

해방 후 2000년 전까지 분석
사상 미약 '종단개혁' 폐해 多
교불련, 한국불교 중흥 토론도



1945년부터 2000년까지 시대별 한국불교 이념을 분석한 논문이 발표됐다.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사진〉는 8월 15~17일 진행된 한국교수불자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한국 현대불교의 종단사와 이념'을 통해 한국불교 시대별 이념을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해방 이후부터 2000년까지 시대를 △해방공간(1945~1950) △정화공간(1951~1962) △산업화 공간(1963~1980) △민주화 공간(1981~1999)으로 구분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해방공간을 지배했던 불교의 이념은 대중불교(식민지불교)와 전통불교였다. 이는 식민지 공간의 불교 근대화에서 나온 불교 흐름과 이에 대립하는 것이 전통불교 흐름이었다.

정화공간에서 한국불교는 식민지불교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김 교수는 "정화공간 안에서 불교 및 승려를 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의해 비구불교가 지배적 이념이 됐다"면서 "대처 측은 자신들의 노선을 보살불교로 강변했지만, 신도와 국민들에게는 수용되지 않았고 정화불교 노선이 더욱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산업화 공간 안에서 불교는 현대화와 호국불교가 주된 이념으로 작용했다. 불교 현대화는 당대에 불교를 토착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었고, 당시 사회를 풍미했던 민족주의도 영향을 미쳤다.

반작용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불교가 돼야 한다는 당위성 아래 체재 우호적 노선을 걷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1980~90년대의 치열했던 민주화 열기는 불교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대두됐던 '민중불교'는 국가권력으로 인한 10.27법난과 광주민주화운동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나왔다. 불교는 민중불교적 관점에서 사회 민주화에 동참했고, 이는 불교 내부 혁신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불교의 자주화 및 혁신을 사회 민주화와 동일하게 인식한 결과로 이전 이념인 정화불교와의 대립에서 민중불교가 승기를 잡아 종권을 장악했다"면서 "그러나 불교사상의 근거가 미약한 종단개혁은 불교의 세속화를 가속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의 논문은 '한국불교 중흥'을 주제로 한 1부 발표에서 이뤄졌으며, △송운석 단국대 교수의 '한국불교 종단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김성규 영남대 교수의 '한국불교의 위기와 중흥전략'도 발표됐다.

이후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조계종 前 중앙종회 부의장 법안 스님을 비롯해 윤성식 고려대 교수, 이종수 중앙대 교수 등이 참여했으며 교수불자대회 참가자 전원이 참석해 한국불교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대중공사도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韓中 학자, 근현대불교 사상·의례 살핀다

연세대 철학硏·선학회, 23~27일 국제학술교류회 개최

한국과 중국의 근현대불교 사상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연세대 철학연구소는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연세대 문과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중 근현대불교의 사상과 의례'를 주제로 국제불교학술교류회를 개최한다. 교류회는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가 주관하고,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과 어산작법보존회(이사장 법안)가 후원한다.

한국과 중국의 불교학자 13명이 참여하는 이번 학술교류에서는 성철 스님의 선사상부터 현대 불교음악까지 다양한 주제의 학술 논문들이 발표된다.

한국 측에서는 △신규탁 회장의 '조선 근현대불교관계법령과 선교 강학 전통' △박인석 동국대불교학술원 교수의 '퇴옹 성철의 임제록 강설과 해인총림'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HK교수의 '성철 선사의 간화선법 일고'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성철 스님 〈백일법문〉의 핵심철학' △어산작법학교 학장 법안 스님의 '현행 한국수륙재의 양상여특징'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학 연구교수의 '한국불교의례의 실태와 과제 및 그 해법의 실상' △윤소희 위덕대 학술연구교수의 '한국 현대 불교음악의 유행과 반추'가 발표된다.

중국 측에서는 조문흥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당위서기의 '항일전쟁 기간 중 중일불교계의 전쟁에 대한 태도 비교'를 비롯해 △위도유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의 '성철 선사의 돈오돈수와 중국 선불교의 한국화' △기화전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연구원의 '북양정부 시기의 불교 정책과 사원관리임시규칙' △소장가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연구원의 '티베트 불교 밀교 수행의 구조와 체계' △하덕미 중국사회과학원세계종교연구소 불교연구실부연구원의 '동진시대 선비들의 불교신앙의 내용과 특색' △호정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연구원의 '한국 현대 불교의 법맥과 성철 선사' 등의 발표가 이뤄진다.

신성민 기자

